

추 모 사

죽암당 정락스님!

**생사분별을 일도양단하기 위해
적요(寂寥)한 겨울날을 부단히 정진해온
납자들이 또 다른 길을 찾아 만행을
나서는 해제일에 ‘자기도 이익 되고
남도 이익 되는 삶을 살라’고 법문을
내리시더니 홀연히 어느 세계로 만행을
떠나셨습니까?**

**어느 세계의 중생들을 이 사바의
중생들보다 더 급히 구해야 하기에**

그렇듯 홀연히 세상의 인연을 벗으셨습니까?

춘색이 완전한 오늘, 스님의 49재를 모시는 지금에도 불현 듯 스님의 따스한 자비의 법문이 들려올 듯합니다.

평생을 포교의 원력으로 편력하신 정락스님!

스님께서는 언제나 하심하고, 더 낮은 곳으로 몸을 나투는 육도만행 (六度滿行)의 보살이셨습니다. 하루도 화두를 놓지 않으시면서도 그 누구라도

**법을 청하면 그 어디라도 마다 않고
달려가시어 자비의 법문을 설해 주시니
그 걸음걸음이 모두 자비만행(慈悲萬行)의
수행이었습니다.**

**스님의 이런 수행은 비록 그 백성들이
포악하다 해도 그들을 교화하기 위해
목숨도 아끼지 않겠다던 부루나 존자의
모습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원적에
드시는 그 날에도 사부대중을 향한
법문을 베풀어 주시고 조용히 사바의
육신을 벗으시니 스님께서는 진정한
포교사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여실히**

보여주셨습니다.

이렇듯 스님께서는 언제나 대중 속에서 자비의 만행화(萬行華)를 피워 내시면서도 검박하고 청빈한 수행자의 모습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작은 재물이라도 대중을 위해 회향하셨던 스님의 뜻은 열반 후에도 이어져 종단에 교육·포교·자비나눔기금을 기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은 무소유의 수행이 어떤 것인지, 종단과 종도를 향한 회향이 무엇인지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열반 이후에도 성대한 다비식 대신
일상의 연화장으로 장례를 치르라고
당부하신 것에서도 청빈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스님의 이런 모습은 오늘을 사는
수행자들의 귀감이 됨은 물론 모두를
향한 경책이라고 할 것입니다.**

죽암당 정락스님!

**마지막 회상에서도 ‘놓으면 행복해
집니다. 순간의 선택이 미래 생까지
좌우합니다. 주는 것이 복입니다’라고
강조하셨던 그 말씀은 이제 우리**

**사부대중이 일생동안 가슴에 새겨야
할 좌우명이 되었습니다. 언제나
놓으시고 아낌없이 주셨던 그 모습은
모두의 가슴에 사표로 새겨져 있을
것입니다.**

**지금 불어오는 따스한 봄바람 속에
자비의 법문을 다시 한 번 들려주소서.
스님의 그 법문을 이 땅의 중생들에게
또 다시 전해주시길 간청하면서 추모사에
가름합니다.**

불기2555년 4월 6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